



**“새 정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법 조기 제정해야”**

- 박종수 교수, ‘신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 심포지움’서 주장

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가축분뇨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한국축산경영학회가 2월7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개최한 ‘신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 심포지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종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료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 축산법 등으로 산재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 내용을 일원화 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박교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축분 퇴비와 액비의 유기비료화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 교수는 “유기농축산물 생산능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증과 홍보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처리능력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분야 해외산업연수생 3월말
~4월초경 입국**

- 2월말~3월초에 희망농가로부터 신청 접수 양돈분야에 대한 해외산업연수생 도입 시기가 3월말에서 4월초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외국인농업연수협력팀은 지난 1월 27일 농림부가 고시한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과 관련해 “최근 농림부는 양돈농가의 산업연수생 도입시기를 3월말에서 4월초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월말부터 3월초경에 권역별 해외산업연수생 도입 설명회를 거친 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산업연수생은 축산부와 시설원에 부분에 3년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중국, 몽골 등의 국가로부터 5천명이 도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2,500명 정도가 도입되고, 나머지 인원은 3년간 충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 관계자는 “올해 도입되는 2,500명의 해외산업연수생은 사전 교육 등으로 인해 1주 간격으로 100여명 정도씩 입국될 것”이라고 전하고, 해외산업연수생 인원배정은 “부문별로 신청업체에 비례해서 배정될 계획이며, 양돈업계의 경우 산업연수생 신청이 많을수록 많은 인원이 배정된다”고 밝혔다.

돼지시세 수도권 4개 도매시장 평균가로 발표

농림부는 최근 3월 1일부터 돼지가격 기준을 농협 서울공판장·부천공판장, 삼성식품(주), (주)협신식품 등 4개 수도권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시울시세의 경우 출하물량이 적고 불규칙해 가격 등락이 심한 한편, 지난해 2개 도매시장 가운데 하나인 서울 태강산업의 휴장으로 인해 기준가격으로서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며, 이에 4개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적용기로 했다고 밝혔다.

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월24일 겨울철 어린 새끼돼지에 발생해서 양돈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검역원은 “돼지설사병인 전염성위장염(TGE)은 예년에 비해 발생이 많이 줄었으나,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경기도 이천과 용인·양평, 충남 천안과 아산, 전북 김제 등 전국에서 발생했고(2002년 90건-이중 1~4월에 49% 발생), 금년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들 설사병의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과 농장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PED와 TGE 백신은 후보돈은 후보돈 선발시에 1차, 종부 1주전에 2차, 분만 5~7주전에 3차, 분만 2~3주전에 4차 접종하고, 경산돈은 분만 5~7

주전에 1차, 분만 2~3주전에 2차 접종해야 한다.

충남 당진·홍성 등에서 PED 발생

충남 당진군, 예성군, 홍성군 등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월 4일 1월초부터 당진군 순성면, 예산군 덕산면, 홍성군 홍동면 지역 3농가에서 1천60마리의 돼지가 유행성설사병에 걸려 이중 590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폐사축에 대해 즉각 소각, 매립 처리하는 한편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 농가에 농지확보 의무화 추진

- 본회, “양돈농가 농지확보는 현실적 어려워” 반대 표명

앞으로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에도 농지확보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등 축산폐수의 관리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양돈농가들의 분뇨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개정·공포하고, 후속조치로 축산폐수배출시설중 퇴비화방법에 의한 시설에도 농지확보 규정 확대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허가대상 설치허가 신청시 현행 저장액비화방법에 한해서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 내역서를 제출하던 것을 축산폐수 또는 오니

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방법에 의해 비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개정기로 했다.

또한 축산폐수를 퇴비화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를 제출하고, 부산물비료로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 및 판매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회는 “현재 동법 하위법령에 적용되는 가축분뇨 액비화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돼지사육 농가의 경우 1두당 논외의 경우 192평, 밭의 경우 162평의 농경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각 양돈농가의 사육두수에 맞는 농지를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퇴비화 경우에도 액비화처럼 생산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지를 양돈농가들이 직접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종·비접종 지역 임상관찰 철저”

- 농림부,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우속조치 마련
농림부는 인천·경기 돼지콜레라 발생·인접지역에 대한 1·2차 예방접종이 지난 1월 22일 완료됨에 따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농림부는 접종지역에서 태어난 자돈 중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은 자돈과 비접종지역의 돼지는 아의 병원성 바이러스가 자연상태에 존재할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상관찰이 매일 2번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토록 했다.

또한 해당 시·도에서는 공병과 남은 예방약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회수된 공병 및 예방약은 소

각 후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했다.

축단협, ‘축산업 등록제’ 관련 워크숍 개최

- 합리적인 축산업 등록제 실시 방안 모색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축산업등록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등록제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축산업 등록제 실시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3월 5일(수) 수의과학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축산업 등록제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각 축종별 합리적인 축산업 등록제 실시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PED 발병두수 13,924두 전년비 289.4% 크게 증가

지난 한 해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2002년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PED 발생두수는 13,924두(48건)로 전년 4,811(45건)보다 289.4%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제스키는 1,792(50건)두로 전년 10,389(720건)보다 큰폭 감소하였으며, TGE는 전년 520두로 전년보다 34% 감소한 343두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PED 발생두수는 1,271두, 오제스키병 131두, TGE 1두 각각 발생했다.

소독 미 실시 도축장 3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남 당진군은 지난 2월 5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미 실시 도축장 1곳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고, 소독 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2개 농가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이번을 계기로 악성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도축장 및 농가에 대해 방역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독을 소홀히 하는 도축장과 소독 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축산퇴비 공급 농가 비료생산업 등록 제외될 듯

- 본회, 국회 소위원회 위원들 만나 부당성 설명

앞으로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축산농가는 비료생산업 등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9일 이인기 의원 외 21인은 그 동안 비료 생산자업자의 범위를 현행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서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추가하여 생산업자의 범위 확대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 때 염분규제를 하기 위해 비료관리법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본회 김건태 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소위원회에 방문하고, 동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비료생산업 등록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퇴비

에 한정하고, 축산분뇨는 제외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돼지등급판정 수수료 3억6천만원 징수

- 122만7,563두 등급판정 받아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 1월 6일부터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한 결과 1월 돼지등급판정두수는 122만7,563두로 3억6천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축종별 1월분 등급판정수수료를 보면 돼지의 경우 122만7,563두 판정에 3억6,826만9천원, 소 7만9,383두에 1억2,701만3천원, 계란 6,94만5,507개에 947만2천원 등 총 5억475만4천원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가 징수됐다.

서울축산물공판장 도축수수료 인상

- 돼지 100kg이상 18.2%, 100kg이하 6.1% 각각 인상

서울축산물공판장은 2월 1일 도축분부터 소와 돼지에 대한 도축수수료를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돼지의 도축수수료는 100kg 이하시 현행 9천9백원에서 6.1%(5백원) 인상된 1만5백원, 100kg 초과시 현행 2만2천원에서 18.2%(4천원) 인상된 2만6천원의 도축수수료 납부해야 하며, 소의 경우 현행 5만6천원에서 8.9%(5천원) 인상한 6만1천원의 도축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판장 관계자는 "당초 2003월말까지 도축기능을 폐쇄하고, 공판장기능만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서울시 방침에 따라 부천공판장이 도축기능이 확장되는 시기까지 서울 공판장의 도축기능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경비 소요 등으로 인해 도축수수

료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돼지콜레라 이동제한 완전 해제

- 김포, 이천, 여주 등 168농가 정상적인 활동 가능

지난해 경기지역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해당지역 김포, 이천, 여주 등 3개 시·군에 내려졌던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1일 김포시 월곶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첫발생한 이후 12월 21일 이전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그 동안 취해왔던 방역조치를 2월 3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 이천, 여주 등 3개 시·군 168농가 21만8천두의 가축에 대하여 취해던 이동제한 조치 등 각종 규제가 풀림에 따라 이지역내 축산농가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 4.8%

지난해 12월말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내륙지방의 비육돈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내륙지방(강원도 제외) 비육돈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4.8%로 전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할 당시 91.8%로 보였던 돼지콜레라 항체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9월 4.4%로 가장 낮아진 후 10월 7.8%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12월말 현재 4.8%로 낮게 조사됐다.

수과검, 축산용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착수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용 항생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산용 항생제의 사용실태 조사 및 항생제 내성균 조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수과검은 밝혔다.

또한 이번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동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동물용 항생제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국내 최초 돈육 몽골 수출 개시

- 첫 수출물량 20톤, 연간 6천톤 수출 계획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전면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수출이 경남도의 적극적인 수출선 다변화 시책추진에 따라 2월 18일부터 몽골을 첫 시작으로 수출이 제기됐다.

도는 지난해 9월 몽골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돼지고기 수출을 협의, 수출입 약정서를 교환한 후, 지난 1월 24일 몽골정부와 검역조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수출물량 20톤을 첫 수출했다.

이번에 수출하게 된 돼지고기는 경남 김해소재 부산경남양돈조합(조합장 한영섭)에서 가공한 뒷다리살로 앞으로 연간 6천톤, 1천5백만달러어치가 수출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필리핀도 도내 15개업체를 수출업체로 지정, 3월초에는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축협을 냉도체 육질등급판정 적용작업장으로 추가 선정하여 오는 3월 3일부터 육질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

돼지 냉도체 육질(물돼지) 등급판정 8개소로 확대

축산물등급판정소(정동홍 소장)는 돼지고기의 품질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월 3일부터 돼지 냉도체(물돼지) 육질등급판정 시범사업을 4개소에서 8개작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소는 냉도체 육질등급판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육질등급판정을 희망하는 롯데햄우유, 한냉중부, 하이미트21C, 제

필리핀, 한국산 돈육수출 작업장 37곳 승인 예정

우리나라 도축장, 부분육가공장 등 총 37개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필리핀으로부터 곧 승인 될 예정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이번 승인기준은 2002년에 현지점검 시찰한 작업들과 구제역 발생전에 기승인 되었던 작업장들의 재승인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봉**

안전성, 유효성 검증 소독제

씨치-원

- 국내최초 구제역등 OIE A급질병 효과검증**
- 태국KASETSART대 수의과학연구소
- 건국대 동물자원 연구센터
- 안전성 공인**
- 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EPA, FDA, USDA 안전성 등록
-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균력**
-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미 ONYX 미생물연구소 등
- 강력한 침투력과 세척력**
- EPA 5% 혈청테스트 통과, 음수라인 니플 막힘 해결
- 경수내구성과 지속효과**
- CaCO₃ 750ppm이상에도 효과적, 안정된 알킬베치 화학구조
- 악취 및 해충의 유충란 제거**
- 탈취효과 및 악취원인균 살멸, 유충란 살충효과

음수소독의 최종결론

리스트-X

- 탁월한 음수소독 효과
- 항생제, 사용 절감
- 설사, 호흡기 질병예방
- 가축의 활력 및 사료효율의 증대
- 유방, 외음부, 축체 세정소독
- 니플 막힘 해결
- 강력한 탈취, 악취제거
- 유충란 부화방지 · 인축에 안전

무독성 · 무공해 · 환경위생기업



(주)한성바이오캠

본사문의 전화 : TEL : (043)532-0700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590-1
<http://www.hsrq.co.kr>